

“폭염에 미리미리”... 추석선물 사전예약 20% ‘쑥’

신선식품 가격 상승세... 미리 대비
롯데마트, 사상 최대 306품목 준비
김영란법 개정에 10만원대 이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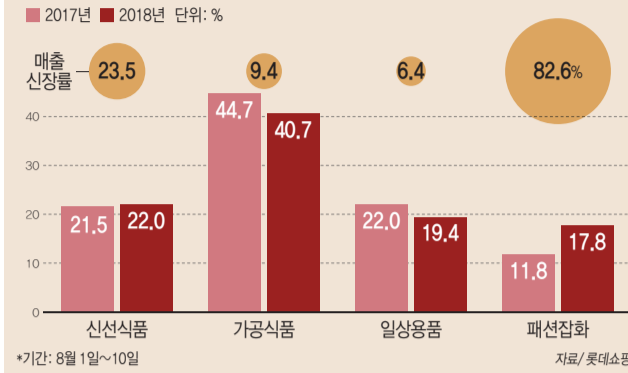
통상 명절을 두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명절 선물 사전예약 판매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명절 선물세트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봤을 때, 연일 3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동기(2017년 8월 9일부터 18일)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의 사전예약 판매 매출이 전체 선물세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추석 20%에서 지난해 35%로 15%p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폭염에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는 전망에 미리부터 준비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에서는 올해도 전통적인 추석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구성비와 매출신장률



선물세트 강자인 한우냉동갈비세트와 3만원 미만 과일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해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전년 대비 23.5%, 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은 각 9.4%, 6.4% 매출이 올랐고, 1만원대 이하 실속형 양말 선물세트의 선전으로 패션잡화 선물세트는 무려 82.6%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증가하고 있는 사전예약 판매 수요를 고려해 올해 신선식품 68종과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165종, 패션잡화 선물세트 73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6개 품목을 준비해 오는 9월 12일까지

(8월 1일부터 43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 비씨 등 10대 카드(롯데/비씨/신한/KB국민/현대/NH농협/하나/우리/광주은행/전북은행)로 결제 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선물세트를 미리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얼리버드 프로모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8월 22일까지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 함량 50%가 넘는 신선

식품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 이하 선물세트가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HACCP(위해요소관리우수) 인증을 받은 1등급 한우만을 엄선한 '한우갈비정육세트(2.1kg)'를 9만 9000원에 선보이며,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 더 큰 할인 혜택으로 10만원 미만에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호주산 소 찜갈비세트(냉동/3kg)'와 '호주산 소 혼합갈비세트(냉동/3kg)', '호주산 소 LA식갈비세트(냉동/3kg)'를 L.point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된 각 8만7500원(정상이 각

12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과일 선물세트를 고객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년 수준으로 가격을 동결했으며 '햇살에 물든 배란 세트(배 9입)'와 '햇살에 물든 사과란 세트(사과12입)'를 각 2만9000원에, '햇살에 물든 사과와배란 세트(배4입/사과5입)'는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L.point 회원 대상으로 이보다 10% 할인된 2만6100원에 선보인다.

남흥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찍부터 한우 선물세트와 과일 선물세트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1만원 이하 일상용품 선물세트와 패션잡화 선물세트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 4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롯데상품권도 주어지는 이번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부담 없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의 배송은 사전예약 판매 종료일인 9월 12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 협력사원 피로 풀어주는 '헬스키퍼'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안마사 채용
점포별 2명씩 상주... 반응 뜨거워

백화점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 건 협력사원들이다. 협력사원은 '백화점의 얼굴'이지만, 유통채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 이처럼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신세계백화점이 발벗고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를 말한다. 이번엔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했으며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새롭게 도입한 헬스키퍼 제도는 본점과 강남점부터 먼저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헬스키퍼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는 협력사원. /신세계백화점

안마사 역시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

신세계 측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업무 부담이 많은 판매 사원 위주로 우선 선정하며 족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있는 협력사원 역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다. 벌써 100%의 예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마 서비스를 시행한 한 달 동안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은 "무료라는 말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여서 그런지 정말 시원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회사가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며 동료들에게도 적극 추천했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김정식 부사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VIP처럼 대우받아야 고객들에게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이제는 반려식물 시대... 100세 시대 외롭지 않아요" 롯데월드몰이 오는 23일까지 지하1층 도토리숲 매장 앞에서 반려 식물 '마리모'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마리모는 저온수에서 키울 수 있는 초록 공 모양의 애완 식물이다.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없이 2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줘도 100년 넘게 살 수 있어서 식물을 많이 키우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 가라앉아 있는 마리모는 광합성을 하면 떠오르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다. /롯데자산개발

롯데백 "캐릭터 만나러 '카페 냅×진' 오세요"

잠실점서 19일까지 한시적 운영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오픈한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 '카페 냅×진'에 고객이 줄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지하1층 월드스트리트 특설매장에 위치한 '카페 냅×진'은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냅×진'은 2004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그려 큰 인기를 모은 서나래 작가의 '냅이 사는 이야기' 속 주인공 '냅'과, 김진 작가가 2010년 연재한 '나이스진타임'의 주인공 '진'의 캐릭터를 활용한 카페다. 오픈 첫날 약 3500명의 방문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롯데백화점이 캐릭터를 활용한 이색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게 된 것은 최근 SNS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이모티콘 등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과 콘텐츠들이 10~20대



'카페 냅×진'을 방문한 고객들. /롯데백화점

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10년간 국내 캐릭터 관련 사업체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캐릭터 사업체의 전체 매출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냅×진'은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식음료 메뉴도 다른 캐릭터 카페와 차별화 했다. '건강한 맛'을 지향해 유기농 밀가루와 비정제 설탕 등 몸에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베이커리와 수제 과일청 등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푸드 올반 냉동볶음밥 3종 출시

신세계푸드가 올반 냉동볶음밥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반 냉동볶음밥은 '새우볶음밥', '햄에그볶음밥', '김치볶음밥'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3~4분간 팬에서 볶거나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볶음밥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신세계백 "드라이어 울볼로 상쾌하게 빨래 건조하세요!" 빨랫감과 함께 통통 튀면서 두들겨 옷의 구김을 펴주는 울볼이 나왔다. 신세계백화점은 폭염에 이어 소나기 등 습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빨래 건조에 도움을 주는 '넬리(Nellie's) 드라이어 울볼'을 선보인다. 드라이어 울볼은 100% 뉴질랜드 양모만 사용해서 만든 공 모양의 제품으로 빨래건조기에 이용 시 빨랫감과 같이 넣기만 하면 된다. /신세계백화점